

무등산 목장부지→‘자연숲’ 복원 추진

훼손 ‘너와나목장’ 자연복원 종합계획 수립

보전·자연복원·인공복원·생태체험 나눠 추진

무등산국립공원 중턱에 위치한 목장부지가 ‘자연숲’으로 복원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국립공원 중턱에 있는 ‘너와나목장’ 자연복원 관련 종합계획을 최근 수립하고, 본격적인 복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해발 약 500m에 위치한 너와나목장은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약 40년 간 14만

m² 부지에 흑염소 300여 마리를 방목해 키웠다. 그러나 목장은 흑염소를 키우기 위해 외래 목초를 심었고, 목장 부대시설로 경계 울타리, 축사 등을 설치하면서 생태계 교란 등 자연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목장 부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올해 3

월에는 전문가 학술 토론회를 열어 복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지난달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단은 목장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경관 회복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보전지역 ▲자연복원지역 ▲인공복원지역 ▲생태교육·체험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2033년까지 각 공간별로 보전과 복원을 추진한다.

우선 ‘보전지역’은 주변 식생과 유사한 형태로 유지돼 있는 지역으로 현재 상태로 보전한다. ‘자연복원지역’은 키가 작은 관목류가 많은 지역

으로 회복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외래 식물을 제거할 계획이다. 외래식물 제거 작업에는 자원봉사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염소의 먹이인 외래 목초가 많았던 ‘인공복원지역’은 신갈나무 등 자생식물을 심어 자연숲으로 되도록 빠르게 복원한다.

아울러 자연숲과 훼손지를 비교하며 훼손지 복원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존 목장 작업로를 활용해 복원 체험길을 조성한다. 매몰된 다랭이논은 생태 습지로 조성하고, 기존 축사는 생태교육·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

/김도기 기자

김영록 지사, 지역 현안 해결 ‘여·야 초월’ 동분서주

김영록 지사가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9조원 확보를 위한 총력 세일즈를 펼쳤다.

김 지사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전남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미래 100년의 그랜드 비전을 촘촘히 그리고 있다”며 “전남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당면 현안 해결을 비롯해 핵심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공백 위기를 적극 전담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지역 의대 신설 방침과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광주·영암을 잇는 속도 무제한의 초고속도로(아우토반)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총 사업비 2조6000억원·2024년 10억원) 사업 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공약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 주관으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포럼 개최도 제안했다. 탄소 중립·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전액 지원’을 건의했다.



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 간담회 개최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광주시 제공

광주시 이스포츠 중심지로 ‘두각’...성과 이어져

광주공업고·자연과학고 이스포츠팀 창단 등 전문인력 양성

광주시가 이스포츠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중심으로 굵직굵직한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과 게임개발자 육성 등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은 광주 이스포츠산업 활성화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포츠 경기장은 4290m² 규모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부조경

실·PC존·미니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 주경기장은 1731m² 1005석 규모로 국제대회 등 메이저급 경기를 치를 수 있다. 가로 15.5m, 세로 4m 크기의 4K 고해상도 발광다이오드(LED)디스플레이가 무대에 구축돼 있으며, 어느 좌석에서든 2000W 이상의 고출력 스피커로 생생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는 올해 대회 유치 21회 등 모두 55차례의 경기가 열렸다.

아시아지역 발로란트 프로팀 메이지급 대회를 비롯해 PC방 이스포츠대회, 직장인 이스포츠대회, 광주지역 고등학교 이스포츠대회, LCK 아카데미 시리즈 챔피언십, GES 아시아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됐다.

이 밖에 이스포츠 인플루언서와 프로선수 등을 초청해 토크쇼·팬사인회 등 팬페스타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위메이드 이스포츠 사업을 진행, 호응을 얻었다. 경기장에서 공모를 통해 단체와 동호회 등이 이스포츠대회를 기획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조일상 기자

광역수장고·아시아 걸쳐타운 건립 추진

광주시, 창의문화복합플랫폼·물역사체험관 등 사업 61건

광주시가 202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개방형 광역수장고 건립, 아시아 걸쳐타운 조성 등 10건을 신규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2025 연차별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은 광주시교육감, 5개 자치구 청장, 시의원, 문화기획·관광·도시계획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연차별 실시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구체화 하는 개별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실행 전략이다.

실시계획의 범위는 국가 직접 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을 제외하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3개 분야이다.

광주시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30명이 참여하는 2025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 자치구·유관기관 등과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신규사업 10건과 계속사업 51건 등 총 61건의 사업에 대한 2025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운행한다

문체부 지역 관광교통개선사업 선정...국비 3억 원 확보

수요자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시티투어버스가 광주에 첫 선을 보인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근 광주시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광주시는 국비 3억 원을 확보, 내년부터 수요응답형 버스(DRT :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방식으로 시티투어버스를 개선해 운영한다.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는 교통

거점과 관광지 3곳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관광객이 정해진 교통거점 노선에서 호출하면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는 상반기 1일 9회·하반기 1일 3회 운행되는 등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대기시간이 길었다. 광주시는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가 도입되면 평균 30분 이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시티투어버스는 고정된 노선을 따라 운행하지만 수요응답형은 관광객 호출에 따라 불필요한 이동경로를 생략, 효율성이 높아진다.

/조일상 기자

농기계 임대사업비 149억 확보...전국 최다

도, 사업소 설치·일관 기계화·노후 농기계 대체 등 추진

전남도가 농가 인력난 해소와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기계 임대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9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분소 설치, 임대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시·군에 지원한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국비 309억원을 포함한 619억원이다. 이중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74억원과 함께 지방비 포함 149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세부 사업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분소) 설치’는 화순군·무안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 등 5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김 호 기자

“ 두근두근 낭만여행 힐링영광 ”

영광군 YEONGGWANG-GUN

순천시 공고 제2023-2359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순 천 시 장

-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814-25 일원
 - 사업내용 :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열분해유화시설 등
 - 계획수립기관 : 순천시
-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장 소	주 소	일 시
팔마체육관 올림픽기념관 교육장	순천시 팔마로 333	2023. 12. 7.(목) 10:00
- 의견진술자 추천 및 신청
 - 신청기한 : 2023년 11월 29일(수)까지
 - 제 출 처 : 순천시 청소지원과
 - 제출방법 : 신청서를 제출처 또는 전자우편(qwerty3690@korea.kr) 제출
 - 선정인원 :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2~4명 이내의 의견진술자 선정
 - 발표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개발기계획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함.

※ 선정된 의견진술자는 별도 통보 예정이며, 의견진술자는 발표자료(10분 이내, 서식 자율)를 2023년 12월 4일(월)까지 제출처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소지원과(☎061-740-6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정수기 필터

필터관리 직접

우리 집 정수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 50% ~ 최저 30%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필터 하나에 1만원!!

(단, 기능성 알칼리 이온수기 필터 제외, 10%)

☑모든정수기 : 웅진, 청호, 아쿠아, 지엠, 대우, 한일, 코오롱 등
☑이온수기 : 바이온텍, 동양, 삼덕오존알카 등

우리집 정수기 좋은물! 필터관리가 소중합니다.

- 1단계 전처리 침전필터(Sediment Pre-filter)
 - 녹물, 흙, 모래, 오염물질 제거. 3개월 사용.
- 2단계 전처리 카본필터(Pre-Carbon Filter)
 - 염소, 발암물질제거, 냄새제거. 6개월 사용.
- 3단계 역삼투압필터(Reverse Osmosis Filter)
 - 세균, 미세한 불순물제거. 15~24개월 사용.
- 중공사막필터(Ultra Filtration Filter)
 - 세균, 미세한 불순물제거. 1년 사용.
- 4단계 포스트카본(Post Carbon)
 - 잔류 유해물질 제거. 물맛을 좋게한다. 9개월 사용

정수기필터 백화점 광주전남지사
주문및상담 062) 361-5456, 011-390-2229